

국가AI전략위, 국가 AI 컨트롤타워 기능 차질 없이 수행

- 과학기술부총리가 상근 부위원장 역할을 겸하여 위원회 운영 공백 최소화
- 18차 운영위원회 개최(5.14.)를 통해 범정부 AI 정책·사업 지속 추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 및 해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AI 전문성과 정책 추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근 부위원장인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상근 부위원장 역할을 겸하여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경훈 부위원장 겸 과학기술부총리는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게 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제18차 운영위원회(5.14.)를 주재하였으며, 향후 운영위원회도 기존과 같이 격주 단위로 지속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26년 1분기 이행점검 결과, ▲ '27년 R&D 신규사업 기획 지원 결과 및 非R&D 지원 추진계획(안), ▲ 「^{가칭}AI 입법 프레임워크(안)」 수립 현황 및 향후 계획(안), ▲ 정부업무평가 작업반 운영 방안(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우선 위원회는 지난 제2차 전체회의(2.25.)를 통해 의결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의 부처별 정책과제 추진 현황과 '26년 1분기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각 부처가 행동계획에 따라 실제 사업과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을 통해 과제별 추진 속도와 성과를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각 부처가 기획 중인 ‘27년 신규 AI 예산 및 사업(R&D 분야)에 대한 지원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非R&D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기획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신규 사업이 행동계획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유사·중복 투자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범정부 AI 정책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지난 4월 「2026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반영된 AI 관련 평가지표(AX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AI 정책 및 사업 추진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아울러 AI기본법 시행 이후 국방·제조·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입법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AI 전략 방향과 정합성을 갖춘 일관된 입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AI 입법 프레임워크(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배경훈 부위원장 겸 과학기술부총리는 “국가 AI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AI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겠다”며, “위원회 운영과 주요 AI 정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 AI G3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총괄전략팀	책임자	팀 장	김보경 (02-2224-4121)
		담당자	사무관	이찬용 (02-2224-4125)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 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